

현대문화의 주술 푸는 주문 '기호학'

생동하는 문화현실 분석한 기호학 도서들

기호학이 현대문화를 해석하는 분석틀로 학계를 '평정' 하고 있다. 연극기호학부터 의상기호학에 이르기까지 기호학이 모든 학문분야와 제휴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학문적 특성에 힘입은 바 크다. 일찍이 에코가 말했듯 사회문화에서 일어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개입해 그 원인을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할 역사적 책무가 기호학에 부과된 것이다.



기호학이 현대문화의 심층을 여는 '도깨비 방망이'로 활용되고 있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표층 아래 숨겨진 '의미의 다발'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온다. 의미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기술하는 기호학이 굳게 닫힌 의미의 성체를 여는 '주문'이 된 것이다.

국내에서 출간된 책제목만 훑어봐도 기호학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현재 '기호'나 '기호학'의 이름을 단 책들만 줄잡아 1백권을 웃돈다. 또한 기호학 앞에 붙는 수식어도 전방위적이다. 종교기호학·연극기호학·음악기호학·시각기호학·건축기호학·영화기호학·광고기호학 등이 그것이다.

기호학의 이런 '팔방미인적' 특성은 기호학의 통합학문적 출생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81주년을 맞는 세계기호학회의 초창기 멤버들은 인문학 전반을 아울렀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 정신분석학자 크리스테바, 언어학자 뱀베니스트, 기호학자 에코 등이 그 면면이었다.

학제간 벽 넘어서는 통합학문 지향

최근 출간된 책들은 기호학의 이론을 소개하는 총론을 넘어서 생동하는 문화현실을 해석하는 각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3월에 나온 《기호인가 기만인가》(김광현, 열린책들)가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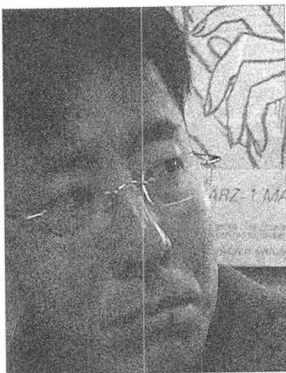
린 기만과 허위의 이데올로기를 기호학의 개념 도구를 빌어 해부하고 있다.

1994년 창립된 한국기호학회(회장 김치수)의 학술지 <기호학 연구> 시리즈는 '이론적 성찰'과 '분석과 해석'으로 나뉘어 몸·사진·만화 등의 문화에 담긴 내포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현재 《문화와 기호》《현대사회와 기호》《삶과 기호》《기호와 해석》《은유와 환유》《언어와 기호》(문학과지성사) 등 6권이 나와 있다.

지난해 창립된 영상문화학회(공동위원장 도정일·성완경)는 영상문화와 이미지 문명에 대한 비판적 담론 구성을 표방한다. 그 첫번째 성과물로 나온 《이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김

“한국 대중문화에는 자본의 논리만 살아 있다”

《기호인가 기만인가》 펴낸 김광현 교수



김광현 교수(41, 대구대 불문학과)가 펴낸 《기호인가 기만인가》(열린책들)는 우리의 문화현실을 지배하는 기만과 허위의 기호들을 해부한 책이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경제자본' (돈)이며 한국의 소비문화는 '외형적 소비'로 명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대중문화를 분석할 때 기호학만의 장점은?

“기호학은 학제간의 장벽을 넘어서 여러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현상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돼 있다. 이런 문화현상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석도구로서 기호학이 유용하다.”

— 한국의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한국의 대중문화에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만이 판치고 있다. 대중문화는 시민들을 수동적인 소비계층으로만 인식한다. 이것은 자본이 안정된 소비시장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 이 책에서 대중문화 현장에 범람하는 가짜 기호들을 고발했는데, 왜 이런 बे끼기, 모방, 표절의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문화적 자생력 없이 디지털 혁명 등 외적인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이다. 차분하게 우리 사회의 여건과 맥락을 되새길 만한 시간이 없어서 외래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고 만다.”

— 이 책에는 분석만 있고 대안 제시는 찾기 어려운데….

“지식인은 '분석'가 지 '예언'가 아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지식인의 역할이 있다. 물론 허위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대안은 분명 있다고 본다. 거부정신이 그것이다. 거부는 인간의 권리다. 현재 우리 대중들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 이것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상환 의, 생각의나무)는 현재 우리 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영상 이미
지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영화와 광고 등의 영상문화와 함께 몸짓과 언어가 결합된 연극도
기호학의 흥미로운 분석 대상 가운데 하나다. 프랑스의 연극평론가
알프레드 시몽의 《기호와 몽상》(박형섭, 동문선)은 연극과 축제를
통해 세계와 우주를 해석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읽어낸다.

이 책은 연극과 축제가 모두 민중적 삶의 조건과 비극성에서 비
롯됐음을 강조한다. 사람은 자신을 신성하게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찾아서 환각의 장소인 연극적 공간으로 들어가며, 연극에서 스스로
를 비추고 스스로의 이미지 속에 몰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이퍼리얼한 현대문화의 특성 해부

움베르토 에코, 롤랑 바르트, 장 보드리야르 등 세계 석학들의 현대
문화 분석서들도 꾸준히 번역되고 있다. 에코의 《기호와 현대예술》
(김광현, 열린책들), 《포스트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조형준, 새
물결)를 비롯한 저작들, 동문선에서 출간되고 있는 <롤랑 바르트 전
집>, 백의에서 나온 보드리야르의 《생산의 거울》과 《유혹에 대하여》
(이상 배영달 옮김) 등이 그것이다.

올해 초 번역된 보드리야르의 《예술의 음모》(배영달, 백의)는 기
호가 현실 그 자체를 대체하는 '하이퍼리얼리티'의 현대사회를 분
석 대상으로 삼는다. 보드리야르는 이런 현대사회의 전형적 특성을
디즈니랜드에서 찾는다. 디즈니랜드는 '실제의' 미국 전체가 디즈
니랜드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롤랑 바르트의 《모드의 체계》(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동문선)는
모드 잡지에 묘사된 여성의복을 기호학적으로 해석한 책이다. 바르
트가 여기서 분석한 것은 의복 자체가 아니라 글로 씌어진 의복의
체계다. 바르트는 갖고 싶게 만드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이름이며,
팔게 만드는 것은 꿈이 아니라 의미라는 것을 입증한다.

기호학의 분석대상은 현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의 시공간
이 모두 풍부한 주제를 담고 있다. 지난해 나온 《설화의 기호학》(송
요섭, 민음사)이 그 예로, 《삼국유사》의 기호체계, 단군신화의 문화

“지적 유행 넘어 깊이 있는 독법 보여줘야”

고려대 언어학과 김성도 교수

김성도 교수(38)는 기호학이 가장 전형적인
'학제적 담론'의 하나라고 강조한다. 90년대
이후 국내에서 기호학의 개념을 빌어 문화현
상을 분석하는 작업이 활발한 것은 기호학의
이런 특성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김교수는
소위 '문화비평'에서 기호학이 하나의 '기호
품' (嗜好品)으로 남용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문화비평에서 굳이 기호학이란 용어를 쓰
지 않더라도 저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장식품처럼
기호학을 내세우는 것은 지적 유행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를 분석하되 깊이 있는 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교수에 따르면,
문화는 소통작용과 의미작용으로 짜인다. 기호학은 이런 문화의 심층논리를 해석하는
분석 도구다. 발신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의미를 밝힐 수 있다는 데 기호학의 유용
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호학을 활용해 문화를 분석한 작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있
습니다. 기호학을 통해 예전에 볼 수 없던 것을 보여주고 세상을 다르게, 더 많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입니다.”

김교수는 의미작용의 세계를 지향하는 데 기호학의 기본정신이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의미의 생산과 조건을 면밀하게 기술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좀더 풍부하게 해석
한다는 것이다. 기호학이 현대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김교수는
강조한다.



적 독해, <바리공주> <시준국> 분석 등을 다루면서 설화가 생산하는 문화적 코드
를 기호학적으로 읽어냈다.

앞으로 기호학적 문화읽기는 출판영역에서 더욱 번성할 것으로 보인다. 에코
가 전망했듯이, 사회문화에서 벌어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개입해 그 원인을 설
명하고 대안까지 마련해야 할 임무가 현대 기호학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천홍 기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장영란 지음/400면/12,000원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식론의 기초로 삼는 감각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의 범위와 한계를 밝히고 지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문제를 분석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체계와 논리를 설명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그의 단편들을 하나로 모아 체계화하고 있다.

희랍 철학 입문

W.K.C. 거스리 지음/박종현 옮김/224면/7,000원

희랍 철학의 권위자인 박종현 교수가 번역한 희랍 철학 입문서. 고전이 전공 아닌 학부 수 강생들을 위한 강의안을 재검필한 것으로 평이한 서술을 통해 희랍 철학자들의 주장의 요지와 철학사적 큰 흐름에 접할 수 있도록 펴하고 있으며, 분량은 그리 길지 않지만 희랍 철학의 진수들로 가득 차 있다.

빈켈만 미학과 그리스 미술

기정희 지음/192면/7,000원

이 책은 에로스와 감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미술 관조의 방식과 미술작품의 기술에서 드러난 에로티시즘적 접근을 빈켈만 미학 연구의 새 관점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리스 미술의 발견자로 잘 알려진 빈켈만 미학을 해석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새 관점에서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62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 924-6161 편집 924-6165 팩스 922-4993 E-mail : phil6161@chollian.net

http://www.seokwangs.co.kr

편집 경력자 모집합니다.